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19
MAY 27 2022

발간년월 2022년 5월 27일(통권 제219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여객 운송사업에 외국인 투자 금지
- 러시아, '가스 무기화'로 유럽을 더욱 압박
-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 러시아 북극 콜라반도 광산 확대
- 아르메니아, 이란과 교통물류 협력으로 고립 타파 추진

전문가 칼럼

- 우크라이나 사태 100일, 러시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전망

주요 통계

- 2022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 EAEU 코드 기준 21~27



주요 동향



러시아, 여객 운송사업에 외국인 투자 금지

그림. 러시아 PPP사업 건수 및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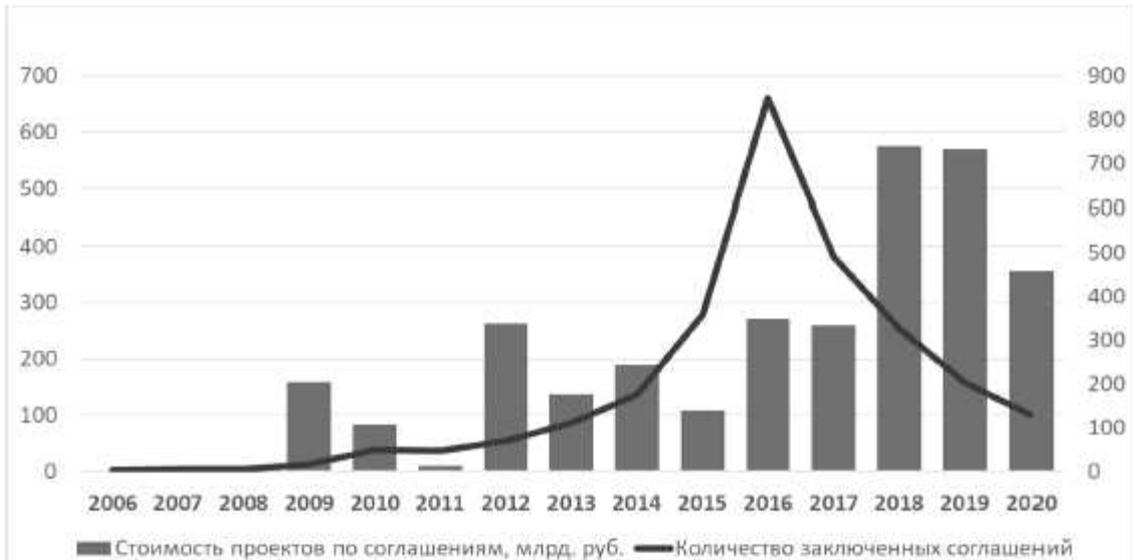


Рисунок 2. Динамика проектов ГЧП в России (без учета отмененных или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енных проект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01.10.2021).

Figure 2. Dynamics of PPP projects in Russia (excluding canceled or prematurely completed projects, as of 01.10.2021).

자료: <https://roscongress.org/materials/gosudarstvenno-chastnoe-partnerstvo-kak-model-razvitiya-publichnoy-infrastruktury/>
주: 회색 막대기- PPP사업 건수, 검은선-PPP사업 금액

■ 푸틴 대통령, PPP 형식의 여객 운송사업에 외국인 투자 금지하는 법률 결재

- 승인된 법령 내용에 따르면, 여객 운송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러시아 법인은 PPP(민관 파트너십) 형식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이 법률 제4조 제12항에 의하면 지하철을 제외한 여객 운송 수단 및 관련 인프라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제5조에 따르면, 양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서 외국인 투자자, 러시아 법인은 제외되나, 러시아 대통령령에 따라 연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양허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다만, 이 법률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회원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회원국 간 협력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에서 PPP 사업은 1992년 소련 붕괴 후 시작되었으나 투지 실적은 미미

- 1990년대 초반에는 설계, 시공, 설치 작업 등과 같은 특정 작업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2005년 7월 ‘양허 계약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고, 서부 고속도로, 풀코보(Pulkovo) 공항 건설 등은 PPP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힘
- 2009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인 PPP센터는 PPP사업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프로젝트 개발 및 다양화 사업을 주도했는데, 2015년 7월 러시아 정부는 민관 파트너십과 관련한 연방법을 채택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인프라 부문에 민간 자본 유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Global Infra Hub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함
 - 영국 및 캐나다: 19%, 호주 33%, 칠레 27%
- 러시아 경제 개발부에 따르면, 양허 협정에 따라 투자한 규모는 러시아 GDP의 약 1.6%임
 - 영국: 6.6%, 호주 및 뉴질랜드 6.9%, 캐나다 8.1%

■ 교통 수단 및 인프라와 관련하여 양허계약이 체결된 최근 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18년 10월 러시아 정부는 라브나 항만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양허계약을 승인했음. 양허계약 내용에 따르면, 석탄 터미널 건설, 동부 해안의 철도 인프라 개발, 서부 해안의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22년 3월 무르만스크 선도개발구역으로 입주한 라브나 무역항(Lavna Commercial Sea Port)은 콜라만의 석탄 터미널 건설 사업에 투자했으며, 해당 건설 사업은 2021년 9월 시작되었음. 선석 길이는 660m로, 2만~15만 톤 규모의 벌크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음
- 러시아 콜라만은 얼지 않는 구역으로 쇄빙선 없이 연중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 또한 연간 1,4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포로나이스크 항만(사할린에 위치)의 다목적 물류단지 건설 사업은 러시아 정부와 ‘Multifunctional Cargo District LLC’ 사이에 체결된

양허 협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이 사업의 내용 중 항만 설계 작업은 2월 초부터 네덜란드의 Witteveen + Bos사(社)가 참여한 컨소시엄인 ‘운송프로젝트 및 투자 주식회사(Transport Projects and Investments LLC)’가 추진 중임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 a) [https://rus-shipping.ru/ru/law/news/?id=47149&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Fsearch%3Ftext%3D\(2022.5.26. 검색\)](https://rus-shipping.ru/ru/law/news/?id=47149&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Fsearch%3Ftext%3D(2022.5.26. 검색))
- b) [https://ria.ru/20220501/investitsii-1786455022.html\(2022.5.26. 검색\)](https://ria.ru/20220501/investitsii-1786455022.html(2022.5.26. 검색))
- c) [https://roscongress.org/materials/gosudarstvenno-chastnoe-partnerstvo-kak-model-razvitiya-publichnoy-infrastruktury/\(2022.5.26. 검색\)](https://roscongress.org/materials/gosudarstvenno-chastnoe-partnerstvo-kak-model-razvitiya-publichnoy-infrastruktury/(2022.5.26. 검색))

러시아, '가스 무기화'로 유럽을 더욱 압박

■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럽향 가스 일부 공급을 중단하며 맞불을 놓고 있음^{a)}

-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 중인 핀란드에 대해 21일 오전 4시부터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음
- 가스프롬의 이번 조치는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을 한 직후에 나온 것이며, 핀란드가 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가스프롬의 요구를 거부한 지 3일 만에 나온 조치임
- 러시아는 또한 야말-유럽 가스관의 폴란드 구간도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중단 배경으로 폴란드가 가스프롬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해 왔으며, 4월 말 러시아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설명했음
- 야말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거쳐 폴란드와 독일로 연결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용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 조치에 핀란드와 폴란드 등 유럽 국가는 사전 대비로 대체 가스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b)}

- 폴란드는 러시아와 30년째 유지해 왔던 가스공급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겠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산 가스로부터 완전히 자립하겠다는 폴란드 정부의 결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우리는 가스프롬이 믿을 만한 협력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음
- 핀란드 또한,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를 잇는 ‘발틱 커넥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대체 가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에스토니아와 협력해 부유식 LNG 터미널 임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와 유럽의 대립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상승^{c)}

- 이와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러시아에 천연 가스를 의존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LNG로 공급망을 바꾸면서 아시아의 바이어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이 같은 경쟁구도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여름에는 최소 25%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음

- 2022년 미국 LNG 생산기업들은 연간 2,000만 톤 규모의 LNG를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2021년에 체결한 계약 합계에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임
- 하지만 미국의 LNG 수출 물량이 막대한 수요로 거의 바닥나고 있어 수요 폭증으로 새로운 LNG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짐

그림. 야말-유럽 가스관과 핀란드-에스토니아 부유식 LNG 터미널



이슬기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 <https://english.alarabiya.net/business/energy/2022/05/23/Poland-terminates-Yamal-gas-pipeline-agreement-with-Russia-s-Gazprom>(2022.5.26. 검색)
- <https://energy.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oil-and-gas/poland-terminates-gas-contract-with-russia/91760043>(2022.5.26. 검색)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5-20/finland-loses-main-gas-supply-as-russia-will-turn-off-taps>(2022.5.26. 검색)
- <https://www.upstreamonline.com/lng/two-us-lng-exporters-announce-new-contracts-as-market-heats-up/2-1-1225597>(2022.5.26. 검색)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 러시아 북극 콜라반도 광산 확대

그림. 러시아 콜라 반도 니켈 광산



자료: REUTERS

■ 세계 최고의 니켈 생산업체인 노릴스크 니켈이 러시아 북극 콜라 반도의 Severny-Globoky 광산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음^{a)}

-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부품인 리튬이온 전지의 수요 확대로 주요 소재인 니켈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음
- 글로벌 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니켈 가격이 최근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톤당 1만 2,000달러를 기록,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니켈 수요 급증에 따라 노릴스크 니켈은 러시아 북극 콜라반도의 지하 광산을 향후 12년 동안 440m에서 730m 깊이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 러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890만 톤으로 세계 9위(8.5%), 생산량은 세계 3위 수준임^{a)}

- 러시아 니켈 생산은 세계 1위 생산기업인 노릴스크 니켈(Nornickel)에 거의 집중돼 있음. 이 기업은 타이미르 반도(시베리아)와 콜라반도(북서 러시아)에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음
- 콜라반도에서는 현재 620만 톤의 니켈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확장공사로 인해 1억 톤 이상의 광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광산 확장에는 기존 방식이 아닌 특수 드릴 장비를 장착하여 향후 920미터 깊이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첨단 산업 분야에 쓰이는 러시아산 광물과 소재는 서방의 대러 제재 시 최대 딜레마로 꼽혔는데, 노릴스크 니켈의 주요 생산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a)}

-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세계 최대 니켈 생산회사인 러시아의 노릴스크 니켈과 이 회사 최고경영자를 제재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주요 원자재 확보에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에 벌을 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하지만 제재 대상 제외와 니켈의 강력한 수요에도 영공 폐쇄 및 유럽 항구들이 러시아 상품의 하역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라 니켈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슬기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 a) <https://www.arctictoday.com/with-nickel-in-high-demand-nornickel-expands-kola-mine/>(2022.6.26. 검색)

아르메니아, 이란과 교통물류 협력으로 고립 타파 추진

그림. 아르메니아-이란 교통물류 분야 장관급 회담



자료: <http://armenpress.am/eng/news/1083319.html>

■ 아르메니아-이란 간 물동량 확대 논의를 위한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음^{a)}

- 그넬 사노샨(Gnel Sanosyan) 아르메니아 지역행정인프라부 장관과 로스탐 가세미(Rostam Ghasemi)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장관은 최근 장관회의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르메니아 내 이란 기업의 사업참여 확대와 이란 화물의 아르메니아 육로운송 활성화를 위한 방해요소 철폐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음
- 사노샨 장관은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현재 아르메니아는 해당 도로 건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특히 아르메니아 남부와 이란 북부 국경지대를 연결하는 슈니크(Syunik) 주 도로 구간 건설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음

■ 이는 아르메니아의 카라바흐 전쟁 패배 및 실효지배영역 상실과 무관하지 않음^{b)}

- 2020년 2차 전쟁 승전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카라바흐 주요지역 및 독립 직후 벌어진 1차 전쟁 패전으로 인해 아르메니아로부터 상실한 영토의 관할권 또한 회복하였음.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군의 철군 후 2021년 11월 슈니크 주(옛 아르메니아 실효지배 아제르 영토)와 이란 국경을 잇는 고리스-카판 하이웨이(Goris-Kapan Highway)에 국경 검문소를 설치한 바 있음
- 이는 이란과의 연계가 절실한 아르메니아에게 치명적인 결과였음. 이에 2022년 2월 니콜 파시냘(Nikol Pashinyan) 총리는 관할권을 상실한 도로를 우회하여 이란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

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음. 신규 프로젝트는 슈니크 주 시시안-카자란(Sisian-Kajaran) 마을을 잇는 60km 구간의 도로 건설 및 현대화 작업임

■ 아르메니아와 이란 양국 프로젝트 활성화는 이란 정부가 코카서스 지역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a)}

- 이란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인도와 함께 남북교통회랑(The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의 중심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가 남북회랑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나섬에 따라 이란, 아제르바이잔 또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음
- 아울러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물류 교통을 고립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수북지역을 연결하는 호라디즈-재브라이을-젠길란-아그밴드 (Horadiz-Cəbrayıl- Zəngilan-Ağbənd) 철도와 아르메니아-이란의 연결을 차단하고 수도 바쿠-월경지 나히체반-터키를 연결하는 젠게주르 회랑(Zəngəzur Corridor)이 그것임
-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젠게주르 회랑을 아제르가 혈맹인 터키(나토)와 최근 관계가 강화된 이스라엘(시오니스트)을 끌어들이는 길이라고 반발하였음
- 동시에 아르메니아와의 물류협력 강화를 위한 아르메니아 메그리(Meghri)를 경유하는 철도 사업, 아제르 나히체반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을 연결하여 이란까지 확대되는 줄파-예레반(Culfa-Yerevan) 노선 건설이 논의된 바 있음. 그럼에도 이란은 아제르와의 남북회랑 또한 차질없이 진행 중임
- 이 사례는 이란이 견제와 상호의존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여 코카서스 내 지정학적 존재감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조용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https://armenpress.am/eng/news/1083319.html>(2022.5.25.검색)
- <https://asbarez.com/armenia-pressing-ahead-with-road-upgrades-in-syunik-province/>(2022.5.25.검색)
- <https://armenianweekly.com/2022/05/25/iran-plays-its-cards-in-the-south-caucasus/>(2022.5.25.검색)



우크라이나 사태 100일, 러시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전망

오선근 재러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

1. 對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의 맞대응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에서 일명 ‘특별군사작전’으로 명명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지도 3개월째를 넘어 이제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사태 발생 이전을 잠시 뒤돌아보면, 2021년 말부터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행동 발생 우려에 대해 전하고 있음을 러시아 언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해 왔었으나, 러시아 국민들은 이를 미국과 서방의 일명 루소포비아(Russophobia) 행위로 치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2022년 1월 10일 미국-러시아 간 제네바 회담과 1월 12일 러시아-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브뤼셀 회담, 1월 13일 러시아-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간 빈 회담에 이어 1월 21일 미-러 국무장관의 제네바 회담까지 지속되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혹시나 하는 우려 분위기와 함께 러시아 경제학자이자 러시아 아카데미(학술원) 북미연구 부소장인 빅토르 수판 교수는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와의 1월 말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권력자나 재벌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high impact)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들에 대해 다음의 4가지 정도를 예상했다.

- 1) (이미 언급되어 온) 달러화 국제통화 시스템(SWIFT)에서 러시아의 퇴출
- 2) 러시아 채권 거래 금지
- 3) 가전제품과 자동차, 스마트폰 등 전자장비부품에 대한 판매금지
- 4)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결제시스템의 중단

실제로 위 예상 제재조치들은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으며, 사태 직후 제재 분야가 확대되어 대 러시아 물류중단과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영업중단 및 철수,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함께 스포츠, 언론, 문화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러시아 퇴출로 이어졌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3월 초 알-자지라(Al Jazeera) TV 인터뷰를 통해 서방의 제재에 대한 예상과 준비를 했으나 스포츠, 문화계, 연예인, 언론인 등에 대한 제재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서방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내부 단속과 대응 규제 및 제재를 통해 맞서고 있다. 기본적인 정치·외교 관련 대응 제재는 차치하더라도 러시아 정부는 2월 말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a)}하였고, 이어 통화 규제를 위해 러시아 거주자(영주권을 포함한 러시아 국적자 및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와 비거주자(외국 국적자 및 러시아에 등록된 대표사무소·지사·외교조직·외국단체 등)의 외환거래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으며, 거주자는 무역거래 획득 외화의 80%를 무조건 매각 조치하도록 했고, 3월 1일과 6일 정부령을 통해서는 거주자의 경우 비우호국 외국인과의 거래 시 러시아 재무부 산하 신설 위원회의 특별허가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3월 5일 거주자의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채무 상황을 특별 계좌를 통한 루블화 상환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b)}했으며, 3월 9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 예금의 인출을 1만 달러까지만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3월 27일부터 비우호국의 비거주자 단체는 외환시장에서 모든 외화의 구매를 금지시켰다. 4월 1일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비우호국 등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는 한 달에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졌고, 거주자 단체(법인)에 대한 해외 송금 규제를 폐지했으나 반면 비우호국에 속한 단체(법인)는 해외 송금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그 밖에, 3월 9일 러시아 주요 219개 품목에 대한 수출 금지와 제한 조치, 3월 10일 러시아 철수 외국기업 자산에 대한 국유화 및 법정관리 조치, 4월 1일부터는 비우호국에 대한 수출 천연가스 대금 결제를 루블화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수출과 관련한 내부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2.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3개월, 표면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의 러시아

사태 직후 3월 한 달은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연일 전해지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의 맞대응,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a)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 추가 지정을 통해 한국을 3월 8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였고, 현재 총 48개국을 비우호 국가로서 지정하였다.

b) 초과 시 루블화로 지급되며, 이는 9월 9일까지 6개월 간 지속된다.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내 영업 중단과 러시아 시장으로부터의 철수, 항공로 폐쇄와 운항 중단, 해외금융거래 중단, 물류 중단, 기록적인 루블화 환율 급락과 인플레이션 등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듯한 3월 한 달이었다. 하지만 3월 말부터 분위기가 바뀌면서 5월 현재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2-1. 루블화 환율

2020년 3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가 방역을 이유로 빗장을 내건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 기준으로 2년 가까이 1달러 당 70루블 대(원화 대비 1루블 당 14~15원대)를 유지해 오던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2022년 2월 23일부터 1달러당 80루블을 넘어선 이후 연일 급락하면서 3월 11일 1달러당 120루블(원화 대비 1루블 당 8원대)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으나, 이후 다시 급속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5월 25일 기준 1달러당 56루블(원화 대비 1루블 당 22원대)로 2018년 3월 이후 달러 대비 루블화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루블화 급락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과 서방의 대러 제재에 있으나, 서방 언론에서 전해지는 제재의 구멍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러시아 당국이 3월초 본격적으로 취한 내부 규제들과 루블화 강세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은 러시아 당국의 조치들이 루블화 방어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며, 가스대금의 루블화 결제 조치나 채무의 루블화 상환 발표 등도 루블화 강세를 이끈 요인으로 거론된다.

루블화 방어의 선봉에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그 수장인 엘비라 나비올리나 중앙은행장이 있다. 2013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을 이끌고 있는 나비올리나 중앙은행장은 서방에서도 높게 평가받는 인물로 올해 초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소문이 러시아 언론들에 전해졌으나, 정부와 의회에서 재신임을 받아 현재까지 러시아 금융시장을 이끌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즉각 올리면서 환율과 인플레이션 방어에 나섰고, 러시아의 외환과 관련된 여러 규제들도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조치하면서 중앙은행이 루블화 방어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와 루블화 강세로 말미암아 인상한 20%의 금리를 3%씩 두 차례나 인하했던 러시아 중앙은행은 5월 26일 다시 기준 금리를 3% 낮춰 11%로 인하했는데, 이에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5월 25일 미국의 러시아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 불가 조치와 맞물려 5% 이상 하락한 1달러 당 62루블을 기록하였다.

2-2. 인플레이션

2022년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산업통상부, 경제개발부 등의 경제 관련 중앙부처마다 전망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현재 연 17%대의 상승률이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통계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의 자료에 따른 2022년 3월의 물가상승률은 2015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16.90% 수준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16.69%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2월의 상승률인 9.2% 수준에 비하면 분명 우려스러운 수치이다. 4월에도 17.8% 수준을 기록했으나, 5월 20일 기준 17.5%로 소폭 둔화된 점이 눈에 띈다.

식료품 가격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022년 3월에 18%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고, 품목별 인플레이션율을 살펴보자면 러시아 지방에서 한때 사재기 현상을 야기한 설탕과 함께 야채와 과일, 곡물, 유제품, 해산물, 오일, 가금류, 빵 등이 모두 두 자리 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3월의 가격 상승은 지난 2014~2015년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판매업자들이 선제적으로 물품 가격을 올린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물가 상승을 소비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러시아 사회나 시장에 큰 타격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2-3. 사회 분위기

지난 3월의 과열된 사재기 현상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식료품이든 비식료품이든 대형쇼핑몰이나 마켓, 일반 상점의 진열대에는 여전히 상품들이 풍성하게 진열되어 있다. 다만 세제나 위생용품 등 일부 품목의 종류가 조금 단순해졌지만, 그 외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분위기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철수나 영업 중단으로 쇼핑몰 및 전문매장 일부의 진열대가 비어 있기는 하나, 철수 기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국유화나 법정관리 조치가 발효되면서 해당 글로벌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철수가 아닌 잠정 영업중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맥도널드와 스타벅스, 나이키, 그리고 르노 등 글로벌 대기업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맥도널드는 기존 시베리아 지역 라이선스와 매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사업가에게 러시아 전역 850여 개 매장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고, 르노社 역시 지분을 모스크바 시에 넘기면서 공식 철수했다.^{c)}

c) 현지 정보에 따르면, 르노社가 지분을 모두 러시아 정부에 넘기기는 했으나 러시아 시장으로의 복귀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러시아의 안정적인 분위기가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이 올해 2022년 초강세를 보인 화폐로 루블화를 선정할 정도로 급속한 하락과 초고속 상승세를 보인 루블화 환율이지만, 이 환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는 거의 없다.

러시아 금융전문가들도 현재의 루블화 강세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선 러시아 정부의 내부 정책에 의한 것일 뿐 정부 제한 조치들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면, 최소 3분기 이후 2022년 연말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을 1달러당 최소 70루블에서 80루블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 루블화 환율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더불어, 러시아 경제정책 관계자들의 언급을 인용한 러시아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2022년 3분기 대한 언급이 반복되는 등 3분기 러시아 경제 위기 발생 가능 전망이 있어 보인다.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경우, 일부 부족현상을 보였던 여성·유아 위생용품에 대해 지난 3월 17일 완제품의 재고가 2~3개월, 또한 제조업체의 생산원료도 2~3개월분이 확보된 상태라고 러시아 언론에 전했다. 또한, 지난 4월 초 설탕 수요 폭증 당시 2일 분에 불과했던 유통업체 재고량이 현재는 최소 8일 분으로 확대·확보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소금은 12일 분, △식용유는 14일 분, △메밀은 22일 분, △밀가루 24일 분, △쌀 26일 분, △마카로니는 34일 분 등 식품 비축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확보량은 최소 몇 주에서 한 달 이상 분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2022년 3분기 위기 상황에 대비한 예비분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Izvestiya)는 4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수입 가전·전자 유통업체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하여, 갑작스러운 수요 폭증이 일어나지 않는 한 늦여름(8~9월)까지 수입 가전 및 전자제품의 재고량 유지가 가능하다고 전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들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모두 3분기라는 점이 주목된다.

5월 26일 나비올리나 러시아 중앙은행장도 러시아 은행협회 모임에 참석하여 다가오는 분기(3분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적응하는 시기 동안, 러시아 기업들이나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현재 러시아는 이러한 우려를 병행수입정책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물론 러시아 당국은 임시 방안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원천 제작사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4.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과 당면 과제

현재 러시아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유럽관문의 역할을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극동지역을 포함하여 대략 13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14년 크림사태 이후 발효된 미국과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따른 돌파구를 찾아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실제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제재 품목을 다루는 기업들과 러시아 현지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정치·외교적, 지정학적 관계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활동에만 전념하기 극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부품 수급의 곤란함으로 인해 기존 재고만으로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며, 대금결제도 러시아 모스크바에 법인으로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인 우리은행 러시아 법인이나 하나은행 러시아 법인을 통해 일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에 들어 유럽으로 향하는 창이자 관문 역할을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한 물류흐름이 막힌데 반해, 극동지역 및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한 물류 수송이 가능해진 바 러시아 당국 역시 자구책으로 극동 지역 물류시스템 확장에 나서고 있는 점은 고무적으로 여겨지며, 러시아 식품업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현 상황에 발을 맞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러시아가 수입제품이나 일반 상품의 부족 현상을 겪어 현지화 제품 완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같은 시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의 단순한 이익 문제를 떠나, 국제정세 및 동향을 살펴야 한다는 점은 어찌 보면 현 상황의 최대 딜레마라 볼 수 있다.

5. '위기'를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시작점'으로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글로벌화라는 변화에 호응하여 그 노력의 대가를 얻었다. 대한민국 경제가 60~70년대 수출지향경제를 추구한 이후 대기업들을 필두로 한 우리 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점유해 나갔고,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북방시장이 열리며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제품 품질과 기술력 뿐 아니라 기업 브랜드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인식도 크게 성장했으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와 시스템이 기업의 시스템과 브랜드 인지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명 불일치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결국 1997년 IMF사태를 야기했지만 이 역시 극복해 낸 대한민국은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K-POP, K-MOVIE, K-DRAMA, K-BEAUTY 등 대한민국의 문화와 산업 전반을 내세운 국가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우위를 점했고, 이제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반도 5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지난 30년을 거친 세대가 아마 가장 축복받은 세대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0년 글로벌화라는 대외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전을 이루어 왔다면, 이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일명 ‘신냉전 구도’와 ‘지구촌 편 가르기’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물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겠지만) 국가와 기업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대처방법 향방에 따라 현재의 대내외적 ‘위기’가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시작점’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표. 2022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1/2022 증감율**
극동지역	11.4(-1.3%)	6.8(+4.8%)	18.2	+0.9%
북극해	1.3(-12.9%)	6.3(+11.0%)	7.6	+4.3%
발트해	6.8(-11.3%)	11.8(+13.9%)	18.6	+2.3%
아조프-흑해	8.2(+2.9%)	10.5(+2.7%)	18.7	+0.3%
카스피해	0.2(-12.9%)	0.2(-44.6%)	0.4	-32.8%
합계	27.9(-5.5%)	64.4(+7.3%)	63.5	+1.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흐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스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 a) [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
- b) [https://portnews.ru/news/326442/\(2022.3.24. 검색\)](https://portnews.ru/news/326442/(2022.3.24.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21	기타 식료품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64.3	58.22
				46000 - 모스크바주	1486.27	298.27
				61000 - 라잔주	1827.37	362.36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4.49	1.73
				41000 - 레닌그라드주	438.93	109.8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347.5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3123.78	1732.34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8.4	0.62
				64000 - 사할린주	52.9	12.69
		11	01-중앙연방관구	61000 - 라잔주	795.76	153.38
				45000 - 모스크바시	551.73	111.84
				46000 - 모스크바주	1298.13	202.2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1.53	17.11
				41000 - 레닌그라드주	1293.98	211.15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998.73	791.62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3.75	2.4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812.29	1293.45
				64000 - 사할린주	30.94	12.03
		12	01-중앙연방관구	61000 - 라잔주	528.93	97.54
				45000 - 모스크바시	991.46	140.41
				46000 - 모스크바주	768.02	145.36
				29000 - 칼루가주	5.88	0.86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2.73	7.14
				41000 - 레닌그라드주	631.05	96.3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211.45	109.4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57.97	19.2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69.85	25.4		
	64000 - 사할린주	40.41	7.66			
	05000 - 연해주	1817.2	1064.06			
22	알코올&비알코올 음료수	10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91.96	92.92

				45000 - 모스크바시	165.9	136.16	
				46000 - 모스크바주	337.63	387.06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6.96	17.82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47.39	56.13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245.12	258.42	
				52000 - 옴스크주	35.86	33.74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622.12	970.62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16	13.84	
				64000 - 사할린주	10.35	5.23	
	및 식초	11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138.2	115.4	
					45000 - 모스크바시	46.68	44.57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1.01	33.73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113.48	130.33
				06-시베리아연방관구	52000 - 옴스크주	35.59	33.28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326.73	279.27
			07-극동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12.25	14.21	
				05000 - 연해주	1057.59	1274.06	
				64000 - 사할린주	24.69	13.44	
			12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115.06	87.61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23.26	19.19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7.25	9.42
					25000 - 이르쿠츠크주	62.08	31.51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13.28	92.74
					64000 - 사할린주	65.28	34.06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453.88	1904.88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94	0.96	
				08-북카프카즈연방관구	07000 - 스타브로폴스크 변경주	48.21	50.68
23	동물용 사료, 식품 잔류물 및 폐기물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77.88	20.25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76.78	20.25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54.59	40.5	
24	담배 및 담배 대체품	10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1874.69	220.92	
		11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1087.95	120.32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8.3	0.48	
		12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2113.81	216.41	

25	소금, 황, 흙, 돌, 석고 재료, 석회, 시멘트	10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52	0.2
		11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75	0.11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91	0.15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23	0.48
		12	01-중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0.05	0.03
				45000 - 모스크바시	64.19	20.1
			29000 - 칼루가주	0.05	0.02	
27	미네랄 연료, 석유 및 증류제품, 역청질 물질, 광랍	10	01-중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46	0.18
				17000 - 블라디미르주	2.94	0.67
			29000 - 칼루가주	0.56	0.08	
			45000 - 모스크바시	7435.95	3594.7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1.95	10.44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15.3	0.81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2.93	0.73
		07-극동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49.59	32.31	
			05000 - 연해주	5278.16	6371.2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813.74	796.89	
		11	01-중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43.97	42.47
				45000 - 모스크바시	10577.82	4591.43
				46000 - 모스크바주	53.22	23.27
			02-북서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1.43	0.37
				17000 - 블라디미르주	1.43	0.33
			03-남부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55.93	20.6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52.56	27.77
			04-볼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0.16	0.05
				92000 - 타타르스탄	13.06	0.69
			06-시베리아연방관구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0.6	0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0.52	0.08				
05000 - 연해주	5223.8	5418.78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4048.04	1645.66			
	64000 - 사할린주	0.62	0.04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4.49	1.82			
12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0.64	0.1		
		46000 - 모스크바주	0.35	0.04		

			45000 - 모스크바시	8678.83	3613.69
			61000 - 라잔주	0.32	0.05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19.73	34.6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20.28	1.07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39.14	17.44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2.88	0.04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3427.87	1377.46
			10000 - 아무르주	74.66	23.21
			05000 - 연해주	7367.06	7891.49

* 주: EAEU 코드 21~27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5.26. 검색\)](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5.26.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21	기타 식료품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81	0.01
			06-시베리아연방관구	01000 - 알타이 변경주	8.65	0.1
				25000 - 이르쿠츠크주	13.2	0.08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0.88	6.96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14.7	9.13
			06-시베리아연방관구	69000 - 톰스크주	10.95	0.1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0.97	6.99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2.19	1.74
			03-남부연방관구	18000 - 볼고그라드주	11.81	14.76
			05-우랄연방관구	75000 - 첼랴빈스크주	5.14	2.43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3.57	0.18		
22	알코올&비알코올 음료수 및 식초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54.11	73.05
			06-시베리아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10.75	15.76
				69000 - 톰스크주	9.54	11.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6.44	409.37	
		11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17.16	37.4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2.94	22.93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5.45	223.03
		12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0.78	16.86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10.71	17.05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0.36	0.32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5.25	520		
23	동물용 사료, 식품 잔류물 및 폐기물	10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10.58	575.2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3335.3	2513.42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591.03	1060.68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2263.83	1291.52
				64000 - 사할린주	1516.63	1100.16
		11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27.54	1665.78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662.35	402.25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542.45	361.63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195.51	147		
				44000 - 마가단주	35.37	35.37		
				64000 - 사할린주	3155.8	1757.78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8.48	17.66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08.99	1070.12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8780.29	6171.9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840.22	560.15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460.23	349.9						
		64000 - 사할린주	1772.57	1139.4				
25	소금, 황, 흙, 돌, 석고 재료, 석회, 시멘트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8.95	0.3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13	0.2		
		12	02-북서연방관구	86000 - 카렐리아공화국	8.5	20.1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17.03	72		
26	광석, 슬래그, 재	10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7517.4	5595.58		
			07-극동연방관구	44000 - 마가단주	2926.43	1908.34		
		12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7828.62	5676.08		
			07-극동연방관구	44000 - 마가단주	2498.74	1530.65		
27	미네랄 연료, 석유 및 중류제품, 역청질 물질, 광랍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336268.76	623584.44		
				70000 - 톨라주	601.28	9351.15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9.59	113.17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33283	55666.67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252.37	399.05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1722.71	2132.51		
			04-볼가연방관구	57000 - 페름변강주	1773.72	1646.58		
				71140 -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4341.47	7780.41		
			05-우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667.25	11888.2		
				32000 - 케메로보주	153926.88	1365455.05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2021.85	137599.76		
			06-시베리아연방관구	95000 - 하카스공화국	3004.94	20554.7		
				05000 - 연해주	754.33	1408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6944.6	54409.45		
				10000 - 아무르주	323.42	5390.4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2383.86	3711.86
			64000 - 사할린주	767132.73	1549832.78
			81000 - 부랴티야공화국	5594.66	37793.7
			98000 - 사하공화국	27701.34	366149.95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213718.1	369990.55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75.05	719.26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9076.96	13425.95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607.5	1250
		03-남부연방관구	18000 - 볼고그라드주	60873.35	82020
			04-볼가연방관구	57000 - 페름변강주	399.14
		05-우랄연방관구	71140 -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24703.05	73870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1911
		32000 - 케메로보주		106932.48	868817.07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9076.72	70695.27
		95000 - 하카스공화국		1971.05	30304.4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450.17	741.68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3875.29	23899.2
			64000 - 사할린주	0.01	0.06
	81000 - 부랴티야공화국		11265.89	65860.45	
	12	01-중앙연방관구	98000 - 사하공화국	12757.68	157921.95
			45000 -모스크바시	248257.84	421294.08
		02-북서연방관구	70000 - 툴라주	763.54	9311.5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32.5	289.1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469.5	750
03-남부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274.65	2084.67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821.5	1550	
		18000 - 볼고그라드주	58807.52	82540.8	
04-볼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735.57	1015.36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1224.25	1230.4	
		57000 - 페름변강주	1791.13	2031.48	
05-우랄연방관구		80000 - 바시코르토스탄공화국	105208.37	179560.18	
	71140 -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43739.16	70060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6600.25	59431.4		

			32000 - 케메로보주	154519.01	1349686.51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0148.64	101766.94
			93000 - 투바공화국	788.51	8804.41
			95000 - 하카스공화국	3710.93	27853.25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112.19	6414.54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4926.56	93958.5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9.65	11.62
			64000 - 사할린주	1000054.33	1761184.3
			81000 - 부랴티야공화국	1323.25	20646.4
			98000 - 사하공화국	20706.16	71204.65

* 주: EAEU 코드 21~27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5.19. 검색\)](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5.19. 검색))